Quan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철현 lch2678@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Quant Comment

국내외 주간 이익 동향 체크

글로벌 이익 동향 및 실적추정치 상, 하향 종목

미국 실적모멘텀 둔화, 반면 중국과 한국, 대만 등은 실적모멘텀 급증. 미국 시총 상위 빅테크 실적 상향 모멘텀 둔화는 1) 자본지출 급증에 비해 완만한 수익화 속도, 2) 최근 빅테크 실적성장률 +30~+50%, 다만 올해 전망치는 +10~+13% 수준으로 둔화로 기대치 약화, 3) 가성비 좋은 대안 출현 지속 등 도전 직면으로 엔트로픽 등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으로 이전되는 경향

팔란티어: 4분기 실적, 매출 YoY +70% 성장하며 시장 예상치 상회, 특히 2026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기존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며 AI 수익화 증명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2월 초 모건스탠리와 JP모건 등 주요 IB들은 양사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파격적으로 상향, HBM4 양산 가동 및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결정권 확보가 핵심이며, 2026년 영업이익 합계 500조 원 상회 전망

ASML: 1월 말 발표된 수주 잔고는 132억 유로로 시장 예상치의 두 배 기록, 이에 2026년 매출 가이던스를 340억~390억 유로 범위로 상향, EUV 노광장비의 독점적 지위 재확인

어드반테스트: AI 칩 테스트 수요 폭증으로 2분기 실적 호조와 함께 FY26 가이던스 상향

일라이릴리: 2월 4일 실적 발표에서 2026년 매출 전망치를 815억 달러(25% 성장)로 상향, 주사제에 이어 경구용 비만치료제(Orforglipron)의 수요 폭발과 생산 능력 확대

애브비 & 암젠: 주력 바이오 의약품의 견조한 매출과 후속 파이프라인의 조기 상업화 성공 가능성이 반영되며 수익성 전망치 상향

GE 버노바: 1월 28일, 주문량이 65% 급증함에 따라 2026년 및 2028년 장기 실적 가이던스 모두 상향, 전 세계적인 전력망 현대화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실적을 견인

록히드마틴: 미사일 생산 프레임워크 확장과 역대급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2026년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

글로벌 이익 상향 업종은 **부동산리츠**(금리하락 기대감으로 레버리지 효과, 데이터센터 및 물류 수요 등), **바이오**(M&A 및 특허만료, 신약 데이터 확인 등), **금속 및 광물**(구리 및 알루미늄 등 AI 데이터센터발 수요, 공급망 재편 및 자원 안보 등). **하향 업종**은 **자동차**(EV 세액 공제 종료 및 보조금 축소 이슈, 점유율 경쟁 심화 등), **소프트웨어**(기업 AI 인프라 구축 집중으로 SaaS 구독 예상 삭감 현상), **종합소매**(아마존의 AWS 경쟁 심화로 이익 미스, 고물가로 소비자 구매력 약화 등)

실적 추정치 상향 주요 종목은 팔란티어, 디지털리얼티, 리얼티인컴, 글렌코어, 뉴몬트, 웨스턴디지털, 셰브론, 버라이즌, 올스테이트, 프롤로지스, 메이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AMD,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카바나, 애브비, ASML, 일라이릴리, 암젠, 어드반테스트, BNP

파리바, 인텔, GE버노바, 록히드마틴 등

하향 주요 종목은 캐리어글로벌, 코인베이스, 코노코필립스, 아마존, 닌텐도, 우버, 페이팔, 퀄컴, 스트래티지, 보잉, 미디어텍, 샤오미, BYD, 노바티스, 엑슨모빌, 트렌스타임, KKR, 소니, 테슬라, 앱러빈, 로슈, 화이자, 프로수스, 오라클 등

국내 증시 이익 동향, 실적추정치 상하향 종목, 수급

코스피 1Q26F OP는 119조원 (1W +1.1%, 1M +17.2%, QoQ +44%). **2026E OP**는 577조원 (1W +2.3%, 1M +21.8%). **1Q26F OP 상향 업종**은 제약바이오, 전기장비, 비철금속, 반도체, 증권. **하향 업종**은 화학, 가구, 항공, 호텔레저, 기술하드웨어, 유틸리티, 방송, 자동차, 상호미디어

국내 대형주 리비전 특징주(1Q26F OP)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려아연, 미래에셋증권, HMM, SK이노베이션, LS ELECTRIC, LG전자, 하이브 상향. POSCO홀딩스, 현대로템,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LG, 현대오토에버 하향

4Q25F OP 상향 주요 종목은 엘앤에프, HD건설기계, 미래에셋증권, 고려아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온시스템, 한전기술, 키움증권, 풍산, 원익IPS, LS ELECTRIC, S-Oil, NH투자증권, 한화엔진, 에이피알, 카카오뱅크, HMM, 유한양행, SK이노베이션, 두산, SK바이오팜, 하이브, LG전자, 한국금융지주, 펄어비스, HD한국조선해양, LG이노텍, 한화시스템, ISC, 삼성전기, 삼성E&A, 한화생명,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에스원, 한화오션, 삼성생명, 한국항공우주, 일진전기, 이수페타시스, 크래프톤, 효성중공업, DB손해보험, 클래시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HD현대중공업, 삼성카드, HD현대마린솔루션, 세아베스틸지주, JB금융지주, KB금융, KT&G, 한국전력, 리노공업, SK텔레콤, KCC, SK

외국인은 주간 11조원 순매도, 반도체에만 10조원 순매도, 역대 최대 수준의 주간 외인 순매도(기존 25.11월 첫 주 7.2조원 순매도), 특히 대형주, 고배당, 성장주에 강한 매도세, 반면 코스닥과 소형주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는 코스피 -11조원, 코스닥 +1,100억원. **외국인 순매수 상위 업종**은 건자재, 항공, 해운, 내구소비재, 가전. **순매도 상위 업종**은 반도체, 방산, 호텔레저, 유통, 건강관리장비

연기금은 중형주 및 배당, 가치주 매수세, 코스닥 및 성장주 매도. 연기금 순매수는 코스피 +1,200억원, 코스닥 -2,000억원. **연기금 순매수 상위 업종**은 상사, 내구소비재, 호텔레저, 유통, 통신. **순매도 상위 업종**은 상호미디어, 디스플레이, 해운, 조선

금주 주요 일정 (경제지표 및 실적발표)

2.9일(월)

- / 벡톤디킨슨, 아크캐피털, 온세미컨덕터, 로우스, 신세계, 미래에셋증권,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0일(화)

미국 소매판매(12월) / 코카콜라, 길리어드사이언스, 웰타워, 포드, 두산, 엔씨소프트

11일(수)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1월), 비농업고용지수 및 실업률(1월) / 시스코시스템즈, 맥도날드, 티모바일, 쇼피파이, 앱러빈, 두산로보틱스, 두산밥캣, 두산에너빌리티, 두산퓨얼셀, 에스엠, 한국금융지주, 현대백화점

12일(목)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기존주택판매(1월) /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카카오

13일(금)

소비자물가지수(1월) / 모더나, LIG넥스원

Quant Comment

지난 주말 강한 위험선호 관찰, 상위 1.5% 수준, 금요일 하루 기준, VIX -18.4%, SOX +5.7%, 달러인덱스 -0.2%,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3bp 등

특히 지난주 외인 코스피 순매도 금액 11조원으로 역대 최대 주간 순매도 금액, 다만 지난주 금요일부로 강한 위험선호 센티먼트로 전환으로 매도세 둔화 예상

최근 선진국대비 이머징 지수 상대강도 가속도 다소 둔화 관찰

반도체에만 지난주 10조원의 순매도, 주말 사이 엔비디아 루빈에 마이크론 HBM 주문 0 소식 등에 외인 매도세 둔화 여부 중요

글로벌 이익모멘텀 미국 빅테크 중심으로 다소 약화, 반면 한국은 올해 1분기 및 연간 기준 실적모멘텀 폭증 지속

위험선호 회복에도 미국 금리는 꾸준히 높은 수준, 가치주 로테이션 컨셉의 최근 장세 지속 전망